

STRATEGY 21

통권38호 Vol. 18, No. 3, Winter 2015

태평양 전쟁기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

- 지정학적 인식과 도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정 광 호**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해양지정학 & 핵심해양공간
 - 1. 해양지정학
 - 2. 핵심해양공간(the Sphere of Core Maritime Interests)

 - III.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의 시작과 미국에 대한 도전
 - 1. 일본의 태평양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의 시작
 - 2. 미국에 대한 도전 : 핵심해양공간의 확보와 차단·소모전략

 - IV. 일본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해양전략
 - 1.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 : 3단계 공격전략의 디자인
 - 2. 동태평양의 핵심해양공간
 - 3. 서태평양의 전진기지화 시도와 실패
 - 4. 미국의 공격적 해양전략

 - V. 결론 및 함의
-

* 본 논문은 제6회 해양학술 논문공모 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임.

** 해사 55기(해군소령), 現 잠수함 사령부 장보고함 부장.

I. 서론

공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태평양 지역의 지리적 특성은 태평양이라는 광대한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꿈꾸는 국가라면 태평양이라는 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인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한 지정학적 동력은 다음의 네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① 1803년 미국은 루이지애나 영토를 프랑스로부터 매입하였다.¹⁾ 이 사건은 당시 미국이 지닌 영토를 두 배로 늘렸고, 이 지역은 현재 미 대륙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광활한 지역이 되었다. ② 미국·멕시코 전쟁(1846~1848)이다. 미국은 멕시코 전쟁을 통해 텍사스, 캘리포니아, 오리건 영토를 합병하였다.²⁾ ③ 머한의 해군력 확장을 통한 태평양 진출론이다. 머한은 국가는 팽창하지 않으면 몰락한다고 보았다. 양자의 상태가 아닌 중간적 입장에 처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북전쟁 후 국내의 발전에만 치중해온 미국인들은 이제 더 많은 풍요와 번영을 찾아서 해외의 영토와 시장을 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이 과정에는 여타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투쟁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며, 그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 확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머한이 팽창의 대상 지역으로 자주 언급한 지역은 하와이 제도, 동아시아, 카리브해와 중미지협(후일 파나마 운하지역) 등이다.³⁾ ④ 1898년 4월 25일 발생한 미·서 전쟁이다. 이 전쟁은 미국의 대규모 식민지 취득의 시작이었으며, 카리브해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지역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⁴⁾

1) 1800년 나폴레옹은 스페인에게서 루이지애나와 중요한 교통 요지인 미시시피 강을 획득하였다. 1808년에 제퍼슨은 리빙스턴을 파리로 파견하여 그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이던 탈레랑과 협상하여 루이지애나를 획득하였다. Arif Dirlik, *What Is in a Rim?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Pacific Region Idea*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1998), pp. 5-6.

2) 미국·멕시코 전쟁에서 미 해군은 빠른 군함과 강력한 포격을 지닌 가장 뛰어난 군대였다.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해군은 신무기인 8인치 '파익산 대포(프랑스에서 도입해온 신식 대포)'를 시험 삼아 사용하여 울루아 요새를 격파하였다. 이는 1847년 초반 베라크루스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Bruce Cumings, *Domin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p. 146.

3) 박영준, "Alfred T. Mahan의 해양전략론에 대한 연구," 『陸士論文集』 제44호(1993년 6월), p. 196.

4) 미국과 스페인과의 전쟁은 1898년 2월 15일 쿠바 아바나 항구에서 미 군함 메인(Maine)호가 폭침되어 266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898년 4월 25일 미 의회는 선전포고를 했고 5,000만 달러를 지원하자 제 25대 대통령인 맥킨리(William McKinley, Jr., 1897~1901)는 스페인 함대에

이처럼 미국은 대륙 통합 후, 태평양 진출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이 머헨 등의 전략가들에 의해 형성되었고, 태평양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군력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방법의 측면에서 미국은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태평양이란 공간을 극복해야만 했다. 즉 미국의 태평양 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군력을 이용한 수단과 방법의 완성은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을 디자인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곧 미국의 대일전쟁계획(오렌지 계획)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태평양 진출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아·태지역의 안보적 환경을 지정학적 전략적 관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태평양의 지정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대일 전쟁 계획을 계획했듯이, 일본 또한 잠재적 적국이 점점 더 실제적 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지정학적 인식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이것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 제국 건설을 위한 대전략 수립의 핵심 수단으로 적용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태평양의 지정학적 특성의 이해와 적용, 즉 태평양이란 공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태평양 국가의 대전략 수립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20세기 초 미·일 간 태평양 전쟁은 아·태지역의 패권을 꿈꾸는 미국과 일본이 해양지정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태평양이란 공간을 극복하기 위한 최초의 강대국 간 해양전략의 대결이었다. 태평양이란 공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태지역의 패권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 간 태평양 전쟁을 해양지정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석은 의미 있는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의 전개는 해양지정학과 핵심해양공간이란 이론적 논의를 시작으로 일본의 도전과 미국의 대응이 핵심해양공간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일본의 최초 지정학적 인식의 시작과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해보고, 다음으로 일본의 도전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해양전략으로 대응했는지를 해양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공격을 시작하였다. 1898년 미 육군은 겨우 2만 7865명에 불과했지만 지원자들이 곧 모여들어 20만 명이 넘게 되자 루트(Elihu Root) 전쟁장관이 이를 근대적 군대 조직으로 재편성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최초로 결정적 타격을 가한 것은 미 해군이었다. 4월 30일 나가사키에 있던 아시아함대 지휘관이었던 듀이(George Dewey) 제독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스페인 함대를 선제공격하여 승리를 함으로써 400년에 걸친 필리핀의 스페인 지배를 끝냈다. 1899년 12월 21일 매킨리 대통령은 미국이 필리핀 전체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Ivan Musicant, *Empire by Default: The Spanish-American War and the Dawn of the American Century* (New York: Henry Holt, 1998), pp. 137-140.

II. 이론적 논의 : 해양지정학 & 핵심해양공간

1. 해양지정학

19세기 말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 통합은 미국에게 지리와 정치적인 측면에서 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아·태 지역에 이르는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태평양이라는 해상교통로를 아무런 방해 없이 항해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제해권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해군력이고, 이것은 곧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미국의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의 태평양 진출이 본격화 된 것이다. 미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한 해양력의 논리를 구축한 사람은 다름 아닌 머헨(Alfred Thayer Mahan, 1840~1914) 제독이다. 머헨은 바다와 이를 지배하기 위한 해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과 해협에 대한 지배가 그 국가의 해양력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로 바다의 거리와 정치적 관계를 국가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해양지정학의 선구자였다.⁵⁾

머헨과 스파이크만(Nicholas J. Spykman, 1893~1943)은 해양중심의 지정학자이다. 머헨의 해양우세론은 “국제정치라는 것은 결국 바다를 통제하기 위한 계속적인 투쟁”이라는 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세계 열강이 되는 길은 해양이라는 공간과 그 공간을 따라 연결된 긴 상업적 통로를 장악하는 것을 그 요체라고 본 것이다. 그리스나 로마 등 지중해 연안국가가 고대 세계의 중심이 된 것은 해양 공간을 장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근대 역사를 통해 해양과 국가 발전의 관계를 연구한 머헨은 영국을 하

5) 머헨의 역사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행위자는 영국이다. 영국은 17-20세기까지 정책에 있어 놀라운 지속성을 보여주며 대양의 지배자로 나섰고, 세계의 심장, 즉 유럽이 다른 강대국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영국의 지속적인 정책은 바다에 축을 둔 지정학적 관점에 기초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특히 발트해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모든 해양의 통행 거점(지브롤터해협, 희망봉, 수에즈운하, 아덴만, 호르무즈해협, 싱가포르)을 통제해 영국 왕실의 보고인 인도와의 연결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었다. 여러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영국은 이 전략 거점망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였다. 육지의 국경에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보호되던 18세기 후반의 미국은 영국과 같은 섬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미국인이었던 머헨에게 미국의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미국이 배워야 할 해양지배의 모델로 영국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Philippe Moreau Defarges, 『지정학 입문: 공간과 권력의 정치학』, 이대희·최연구 역, (서울: 새물결, 1997), pp.50-52.

나의 모범적인 국가의 예로 들어 해양 국가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⁶⁾ 머헨의 해양중심의 지정학 이론은 미국, 일본, 소련의 국력 팽창을 위한 정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해주었으며, 이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해양에 대한 진출 노력을 경주하도록 만들었다.

스파이크만의 이론은 림랜드(Rimland: 림랜드는 유럽해안, 아라비아와 중동의 사막, 아시아의 몬순지역 등 하트랜드의 가장자리 지역을 말함)를 핵심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림랜드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광활한 지역으로 이 지역은 육지와 바다 두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여기서 림랜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지역이며, 서로에 대해, 즉 대륙세력은 해양세력에, 해양세력은 대륙세력에 대해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제하면 바다와 육지를 한꺼번에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파이크만에게 있어서 림랜드가 중요한 것은 잠재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재적 힘이란 인구와 생산을 의미한다.⁷⁾ 유럽대륙과 중국, 인도 등 림랜드 지역의 국가들은 강력한 세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갖고 있고, 이 요소들에 기초해 해양세력, 혹은 대륙세력에 대항하는 독립적인 림랜드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파이크만의 림랜드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수동적 지역이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이 발산되는 능동적인 지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스파이크만은 “림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하고,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스파이크만의 이러한 생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추축동맹(독일·이탈리아·일본)의 급격한 등장과 부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⁸⁾

이러한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태평양이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은 시간과 거리의 관점에서 미국에게는 언제나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태평양이란 공간을 극복해야 된다.

6)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 Little & Brown, 1895), pp.20-23.

7) N. J. Spykman, "Geography and Foreign Policy I.,"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no. 1(Feb. 1933), p.41

8) 일본은 지리적으로 영국과 유사한 근해도서(Offshore island)에 위치한 국가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약간 다르게 이해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은 영국, 미국과 함께 해양세력이지만 이들에게 대항했던 국가이다.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유지되던 균형이 일본의 급부상으로 파괴되면서 일본은 균형 파괴자의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해양국에 속하지만 그 지정학적 역할은 유럽대륙의 균형 파괴자인 독일과 같다고 스파이크만은 이해했다. Michael P. Gerace, "Between Mackinder and Spykman: Geopolitics, Containment, and After," *Comparative Strategy*, 10:4(1991), p.335.

아시아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전진기지, 군수, 보급, 통신, 특히 태평양이란 광대한 공간을 돌파할 수 있는 공격적인 해군력이 필수 조건이다. 이같은 필수 조건들이 정치적 선택의 과정에서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핵심 사항이 태평양이란 공간을 극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평양은 해양지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치, 그리고 해군력을 수단으로 하는 해양지리 공간의 확보라는 핵심적 요소를 통해 국가간의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핵심해양공간(the Sphere of Core Maritime Interests)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해양지리적 공간은 국가의 안보상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지리적 공간을 통제할 경우 지전략적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적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거나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 적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고 양면전쟁을 강요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공격 또는 방어 시 전진기지 및 완충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핵심공간(crucial sphere)’이라 한다. 따라서 태평양지역에서의 해양지리적 공간을 ‘핵심해양공간(crucial maritime sphere)⁹⁾’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해양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고, 경쟁국에 대해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다.¹⁰⁾

한편, 해양은 육지와 같은 참호, 산맥, 수풀과 같은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9) 이 개념은 맥킨더(Halford J. Mackinder)의 ‘중추부(pivot),’ 머헨의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부분,’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의 ‘요체가 되는 국가(linchpin states)’ 등의 개념과 유사하다. Halford J. Mackinder,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Gearoid O Tuathail, et. al., eds., *The Geopolitics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5); Zbigniew Brzezinski, *Game Plan*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86); Geoffrey Sloan & Collins S. Gray, “Why Geopolitics?” *Geopolitics, Geography and Strategy* (London: Frank Cass, 1999) 참조.

10) 핵심공간은 전략적 요충지(chokepoint)와는 다르다. 전략적 요충지는 순수한 지리적 개념으로 수에즈 운하나 말라카 해협과 같이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가치를 갖는다. 반면 핵심공간은 지리와 같이 고정적 개념 뿐 아니라 국가간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정치적 상황, 국가관계, 시기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한다. 박창희, “동북아의 ‘지전략적 핵심공간’과 근대 일본의 현상도전,” 『아시아연구』(2010), pp.60-61.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핵심해양공간이의 설정은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는 도서라는 ‘점’적인 요소의 확보를 통해 ‘선’을 형성하여 핵심해양공간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도전국이 핵심해양공간을 방어 및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능력은 해양력 즉, 해군력의 보유인 것이다.

Ⅲ.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의 시작과 미국에 대한 도전

1. 일본의 태평양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의 시작

1925년까지 일본에서는 지정학이란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해군은 그 당시의 안보적 환경에 대한 현실을 지정학적 전략적 관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해군은 역사적 접근을 통해 지정학적인 인식에 접근하려고 했다. 1897년, 일본 해군대학(the Higher Naval College)의 교장이었던 도고 헤이하치로(Togo Heihachiro) 제독은 오가와 긴지로(Ogawa Ginjiro)와 아리가 나가오(Arigo Nagao)에게 매월 40엔, 30엔의 수업료를 주면서 역사학 및 국제법을 가르쳤다. 도고의 후임자인 사메지마(Samejima Kazunori)는 “만약 해군 장교들이 역사적인 인식에 기초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국가 방위계획을 작성할 수 없고, 강대국의 군사력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없으며, 최근의 강대국의 해군 전술 및 전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하기도 하였다.¹¹⁾

유럽,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해군 또한 다른 지역의 지정학적 조건들을 일본과 주변 지역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1899년 일본 해군은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 함대의 배치, 정복해야 할 항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과정 하에서 일본 해군은 머헨, 콜럼과 같은 해군 전략가들에 의해 지지되어온 함대결전을 통해 제해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11) Takahashi Fumio, “The First War Plan Orange and the First Imperial Japanese Defense Policy: An Interpretation from the Geopolitical Strategic Perspective,” *NIDS Security Report*, No.5(March 2004), p.70.

전략의 본질적인 원칙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해군은 대한해협의 결정적인 전략적 지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쓰시마 섬과 거제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고, 동해를 지중해, 서해를 대서양, 대한해협을 지브롤터 해협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일본은 지정학이 전쟁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일본에게 있어서 지정학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의 형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두 가지로 접근하여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일본이 카리브해에서 미 해군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여 태평양에서의 지정학적 인식을 형성한 예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지정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전술적 봉쇄에서 전략적 봉쇄에 대한 개념의 발전이다. 일본은 태평양의 지정학적 인식으로 미국의 대일 전쟁에 대한 이해와 대미 전쟁에 대한 원칙을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에서의 지정학적 인식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것이다.

첫째, 일본 제국해군 군령부(the Imperial Japanese Naval General Staff) 제 3국은 1902~1903년에 있었던 미국 해군의 카리브해에서의 기동에 관련된 다음의 네 가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① “동계 미 해군의 기동(U.S. Naval Maneuvers in This Winter),” ② “미 육·해군 합동훈련(Joint Exercise of the U.S. Army and Navy),” ③ “카리브해에서의 미 해군의 기동(U.S. Naval Maneuvers in the Caribbean Sea),” ④ “카리브해에서의 미 군 기동의 목적(Purpose of the U.S. Naval Maneuvers in the Caribbean Sea)” 등이었다.¹²⁾

미 해군대학에서 전략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헤이건(Kenneth Hagan)은 미 해군의 캐리비안에서의 기동에 관한 계획들은 미국의 대 독일 전쟁계획인 ‘블랙계획(the War Plan Black)’ 수립의 판단 근거가 되었다고 했다.¹³⁾ 그리고 블랙 계획은 독일의 대미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III(Operational III)’에 대한 분석에서 계획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블랙 계획과 오렌지 계획은 지정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계획된 유사한 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일본 해군은 미국의 대독일 전쟁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의 대미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III(Operational III)’의 목적은 남아메리카에서 독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국의 먼로 독트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12) ① *Army and Navy Journal*, Whole No. 2024(Jun 7, 1902); ② *Army and Navy Journal*, Whole No. 2034(Aug 16, 1902); ③ *Army and Navy Journal*, Whole No. 2044(Oct 25, 1902); ④ *Army and Navy Journal*, Whole No. 2046(Nov 8, 1902).

13) Kenneth J. Hagan, *This People's Navy: The Making of American Sea Power* (N.Y.: Free Press, 1991), pp.237-238.

서인도 제도에서의 독일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일 해군은 푸에르토리코와 푸에르토리코 동쪽으로 3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의 쿨레브라(Culebra Island) 섬을 전진기지화 해야 한다고 계획하였다. 이 두 섬은 카리브해와 대서양 사이의 핵심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파나마 운하의 동쪽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섬이었다.

독일이 이 두 섬을 확보한다면 미국의 동부 해안을 공격할 수 있었고, 미 해군으로 하여금 결전을 유도할 수 있었다. 독일은 미국이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전략으로는 미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함대결전만이 독일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¹⁴⁾ 일본이 대미 전쟁계획에서 점진적인 소모작전을 통해 최종 단계에서 미국과의 함대결전을 계획하였던 것도 이와 같은 지정학적 인식에 기초한 전략계획의 수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해군은 지정학에 대한 개념을 머헨에 의해서도 습득할 수 있었다. 1899년 일본은 머헨의 저서 ‘해양력과 미국의 이익(The Interest of America in Sea Power)’을 번역하였다. 이 책의 8장의 소제목은 ‘멕시코만과 카리브해의 전략적 특징’이다. 여기에서 머헨은 카리브해는 육지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동과 서를 통과하는 전략적 주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중해와 유사한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머헨은 개별 섬(쿠바, 자메이카, 하이티섬 등)과 해상 루트의 지리적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특히, 자메이카에 대한 분석에서 머헨은 만약 영국이 자메이카를 점령한다면, 영국의 지정학적인 취약점은 우수한 해군력으로 인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영국·스페인과의 전쟁을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미·일간 전쟁과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만과 카리브해는 지리적으로 서태평양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북미대륙은 아시아 주대륙, 플로리다반도는 한반도, 쿠바는 일본, 자메이카는 필리핀의 루손섬, 미시시피강은 양쯔강, 쿠바와 하이티섬 사이에 있는 윈드워드해협(the Windward Passage)은 필리핀과 대만사이에 있는 바시해협(the Bashi Channel)과 유사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유사점을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만약 필리핀 마

14) Holger H. Herwig & David F. Frank, “Naval Operations Plans Between Germany and the U.S.A., 1898-1913: A Study of Strategic Planning in the Age of Imperialism,” in Paul M. Kennedy, ed., *The War Plans of the Great Powers, 1880-1914* (George Allen & Unwin Ltd., 1979), pp.52-57.

닐라와 루손섬(자메이카)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의 아시아 함대가 일본(쿠바)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이 바시해협(윈드워드해협)에 대한 통제권과 미국 본토로부터의 보급라인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해군은 머헨의 카리브해의 지정학적인 분석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일본이 첫 번째 제국국방방침을 준비 시, 일본 해군일반참모 제 1 분과의 감독관을 맡았던 카와시마(Kawashima Reijiro) 대령이 1897년에 출판된 머헨의 영문 원본 저서인 ‘해양력과 미국의 이익(The Interest of America in Sea Power)’ 책자에 표시한 메모를 통해서도 일본 장교의 지정학적 인식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는 머헨의 저서 제 8장의 쿠바와 자메이카에 관련된 책장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메모하였다. “영국에 대항한 쿠바와 자메이카의 가치,” “쿠바의 가치에 대한 이론,” “쿠바와 자메이카” 등의 메모를 남겼다.

1897년 미국 해군은 필리핀에서 스페인과의 전쟁 시 처음으로 일본 해군을 가상적으로 간주하였다.¹⁵⁾ 같은 해에 1,174명의 일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호놀룰루 정부에 의해 하와이에서 추방당하였다. 이에 일본은 특별 대사를 전함 나니와(H.I.J.M.S Naniwa)에 승선시켜 하와이로 파견하여 일본인의 일방적인 추방은 미·일간 조약에 위배되고, 일본인의 권리가 상당히 침해당하였다고 강력히 항의하였다.¹⁶⁾ 이같은 미·일간 원만하지 못한 외교적 관계 속에서 카와시마 해군 중장이 1897년에 카리브해의 지정학적인 특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것은 제국국방방침을 작성하고 있는 일본 고위 해군 장교의 자연스러운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봉쇄에 대한 개념의 발전이다. 일본과 미국은 태평양 진출 시 지정학적 인식의 발전으로 봉쇄를 해양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전술적 봉쇄를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1898년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 시 산티아고만(Santiago Bay)과 마닐라만을 봉쇄했고, 일본은 중일전쟁과 러일전쟁 시 여순항을 봉쇄하였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전술적 봉쇄였다.

미국이 대일 전쟁계획 수립 시 일본의 전 지역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봉쇄

15) John A. S. Grenville, “American Naval Preparation for War with Spain, 1896-1898,” *Journal of American Studies*, 2:1(April, 1968), pp.49-60.

16) William Reynolds Braisted,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Pacific, 1897-1909* (New York: Greenwood Press, 1969), p.11.

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킨 것은 남북전쟁의 경험에 의해서이다. 남북전쟁(1861-1865) 시 북부는 700척의 함정으로 남부의 긴 해안선을 봉쇄한 전략인 ‘아나콘다 계획(Anaconda Plan)’을 실시했다. 40년 전 봉쇄전략을 전쟁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승리를 거둔 경험을 가진 미국은 대일전쟁 계획 시 미국의 지정학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계획했던 것이다.

한편 일본이 전략적 수준의 봉쇄개념을 발전시킨 것은 러·일 전쟁을 통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한 것이다. 일본은 1906년 1월, 러·일 전쟁 발생 시 해상에서 러시아 해군과 대항해 승리를 위한 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군사 전문가와 국제법 전문가 및 학자들로 구성된 “해상에서 승리를 위한 조사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이 위원회는 러시아의 아무르강 남쪽에 있는 ‘프리모르스키 크레이(Primorsky Kray)’ 지방을 봉쇄하기 위하여 일본의 쓰시마, 쓰가루, 쓰야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냐하는 문제 등을 연구하였다.¹⁷⁾ 이러한 연구는 일본 해군이 일본 반도와 일본의 전 해역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봉쇄를 검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봉쇄에 대한 개념의 발전은 미국과의 전쟁 시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봉쇄를 당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태평양의 지정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대일 전쟁 계획을 수립했듯이, 일본 또한 잠재적 적국이 점점 더 실제적 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지정학적 인식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이것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 제국 건설을 위한 대전략 수립의 핵심 수단으로 적용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태평양의 지정학적 특성의 이해와 적용은 태평양 국가의 대전략 수립의 핵심 기준인 것이다.

2. 미국에 대한 도전 : 핵심해양공간의 확보와 차단·소모전략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핵심해양공간 확보를 위한 첫 시발점이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시 3개의 전역에 참가하여, 핵심해양공간 확보를 위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첫 번째가 1914년 9~11월, 산둥성 칭도의 독일 항구 및 해군기지의 포위다. 일본 해군은 수상비행기를 칭도의 감시 및 폭격작전에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는 1914년 8~9월, 중앙 태평양에 파견하기 위해 전투그룹(battle

17) Takahashi Fumio, *op cit.*, p.86.

group)을 조직했다. 이것은 표면상으로는 “독일 동아시아함대”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크로네시아의 독일령 제도들(마리아나제도, 캐롤라인제도, 마셜제도)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로는 독일이 연합해군에 대해 무제한 잠수함전을 선포했을 때 일본은 영국의 요청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약 34척의 잠수함이 활동하고 있던 지중해에 일본 함정들을 파견했다. 최신의 순양함과 구축함 전대로 구성된 일본 해군은 1917년 4월, 독일 U-보트의 공격이 최고의 절정이었던 시기에 참가하였다.¹⁸⁾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일본은 그동안 제한되었던 영토적 한계를 넓힐 수 있었고 특히, 독일령 남양제도의 획득을 미국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일본의 태평양 도서에 대한 진출을 미국에 대한 도전의 시작으로 보고 일본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필리핀 남쪽의 야프(Yap)섬은 미국의 태평양에 관한 문제임과 동시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보장하는 해군력과 기지의 문제였다. 야프섬은 미국의 해저전선 중계 기지였고,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미 해군은 이를 국제적인 관리 하에 두고 그 대신 시베리아를 일본에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미국이 독일령 남양제도의 병합에 반대했다는 것은 군사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구독일령 식민지의 위임통치원칙을 결정했던 1919년 1월 30일의 10인 회의 후, 미러(D. H. Mirror)에게 “남양제도는 하와이로부터 필리핀에 이르는 통로의 중간에 있어서 해군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병합반대를 주장했다. 미국은 이처럼 군사전략적 이유에서 일본의 태평양 진출을 방해하려고 하였다.¹⁹⁾

18) 파견함대의 책임자였던 일본 해군 소장 사토 고조(Saro Kozo)는 프랑스의 마르세유(Marseilles), 이탈리아의 타란토(Taranto)와 이집트 항구 사이의 연합 군수송선의 호송임무를 수행했다. 1년반 동안 일본해군은 약 750척의 함정과 240,000마일을 항해하였고, 총 348여회의 호송임무를 수행하였다. 임무 수행 중 일본 함정 사가키(Sakaki)호가 독일의 어뢰공격으로 59명의 승조원을 잃기도 했지만 일본 해군은 대잠전술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 Paul G. Halpern, *A Naval History of World War I*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1994), p. 393.

19)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파리평화회의 중 1919년 4월 21일 야프섬 위임통치의 유보를 제외하고 국제화를 주장하였고, 랜싱 국무장관도 동조하였다. 또 8월 19일 윌슨은 미국 상원에서 야프섬에 관한 유보안을 제출하였고 정식문서는 아니지만 동의를 얻었다. 윌슨 대통령은 영토병합을 완강히 반대하고 연맹에 의한 위임통치를 주장했다. 이 문제는 남아프리카의 수상 스머츠(Jan Christian Smuts) 장군이 제시한 방식이었다. 스머츠가 제시한 위임통치안에는 위임통치국이 시정상의 원조와 권고만을 담당한다는 A식, 시정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B식, 자국 영토처럼 본국법에 따라 통치하는 C식이 있었는데 남양제도는 C식 위임통치 지역으로 분류하였고, 일본의 남양제도 위임통치는 C식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에게 구독일령 태평양 도서에 대한 위임으로 일본의 국제연맹 가입 거절을 막으려는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Clyde & Beers, *The Far*

하지만 일본이 태평양도서를 위임통치 한다는 것이 베르사이유조약 제 22조로 성립되었다. 비록 일본은 구독일령 남양제도의 섬들을 군사기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해양영토를 확보한 것이었다.²⁰⁾

야프섬은 괌에서 필리핀 마닐라의 해상교통로를 공격하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기지가 될 수 있었으며, 팔라우제도와 괌 남동쪽의 다른 도서는 일본의 잠수함 및 함정을 위한 해군기지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야프섬과 구독일령 태평양 도서를 점령함으로써 미국과의 분쟁 발생 시 필리핀 및 괌을 포위할 수 있는 “해상방어구역(maritime defense zone)”을 최초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즉, 일본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해양공간을 확보하는 한 향후 필리핀과 괌을 기지로 하는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의 전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구독일령 남양제도를 일본에 위임함으로써 미국의 대일 전략 수립에 많은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곧 일본의 도전이 미국 안보의 위협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이 대미전쟁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핵심적 개념은 “열세한 해군력을 가지고 어떻게 미국의 우세한 해군력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이것은 일본이 확보하고 있는 해양 도서기지 및 해상 플랫폼들의 작전반경을 고려하여 해상방어구역을 설정하고 소모전을 통해 방어구역을 통과하는 적을 축차적으로 공격,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며 결정적 지점에서 함대결전을 통해 대응한다는 작전개념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일본의 대미전략의 요체인 차단-소모 전략이다.

“방어는 충분하지만 공격은 불충분하다(sufficient to defend but insufficient to attack)”는 딜레마에서 도출된 차단-소모 전략은 러일전쟁 이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22년 워싱턴 조약으로 일본의 “8-8합대”계획이 무산되기 이전까지는 일본의 대미전쟁계획은 주력함의 결전을 핵심으로 하는 “차단전략

East: A History of the Western Impact and the Eastern Response, 1830-1965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entice-Hall, 1958), p.269.

20) 미국은 대 중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 열강의 해군력 투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필리핀은 미국이 중국에서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극동으로 해군력을 투사하는 완벽한 기지였다. 그래서 1919년 파리평화회의는 이론상 미국의 태평양 도서들을 요새화하거나 군사기지화하는 것을 금지하여야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월슨은 구독일령 도서나 야프섬을 일본이 위임받는 것을 막지도 못했고, 산둥성을 중국에 돌려주지도 못했다. 일본이 구독일령 남양제도의 섬들을 점령한 결과 미국은 향후 태평양 지역에서 심각한 군사전략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Hector C. Bywater, *Sea Power in the Pacific: A Study of the American-Japanese Naval Problem* (Boston: Houghton Mifflin, 1921), pp.266-268.

(interception strategy)”이었다. 하지만 이후 기술발전에 의해 함포, 어뢰 등 해상 무기체계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의 플랫폼이 워싱턴 조약에서 제외됨으로써 일본은 새로운 전술을 발전시켰다. 이 전략이 “차단-소모 전략”이다. 1930년 말 공식화된 이 전략은 다음 4단계로 구성되었다.²¹⁾

① 개전 시 필리핀에 주둔해 있는 미국 아시아 함대를 격파하고 육군과 협동으로 필리핀의 루손과 팜을 포위하여 점령한다. 이 작전은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② 잠수함을 미 함대의 소재지(하와이)에 파견하여 그 동정을 감시하고, 미 함대가 출격할 경우에는 이를 추적 및 격파하여 적 전력을 감쇄시킨다.

③ 일본 통치령 남양제도(마리아나제도, 캐롤라인제도, 마셜제도)에 해군항공기를 배치하고 적 함대가 세력권에 진입하면 항공모함 탑재 항공 부대와 협력하여 항공공격을 가함으로써 적 세력을 약화시킨다.

④ 적 함대가 결전 장소에 도착하면 고속 전함으로 호위된 순양함 및 구축함이 야간공격을 감행하여 적의 함대를 공격하고, 이어서 여명 후에는 전함부대를 중핵으로 하는 전 병력을 집결하여 결전을 수행함으로써 적을 격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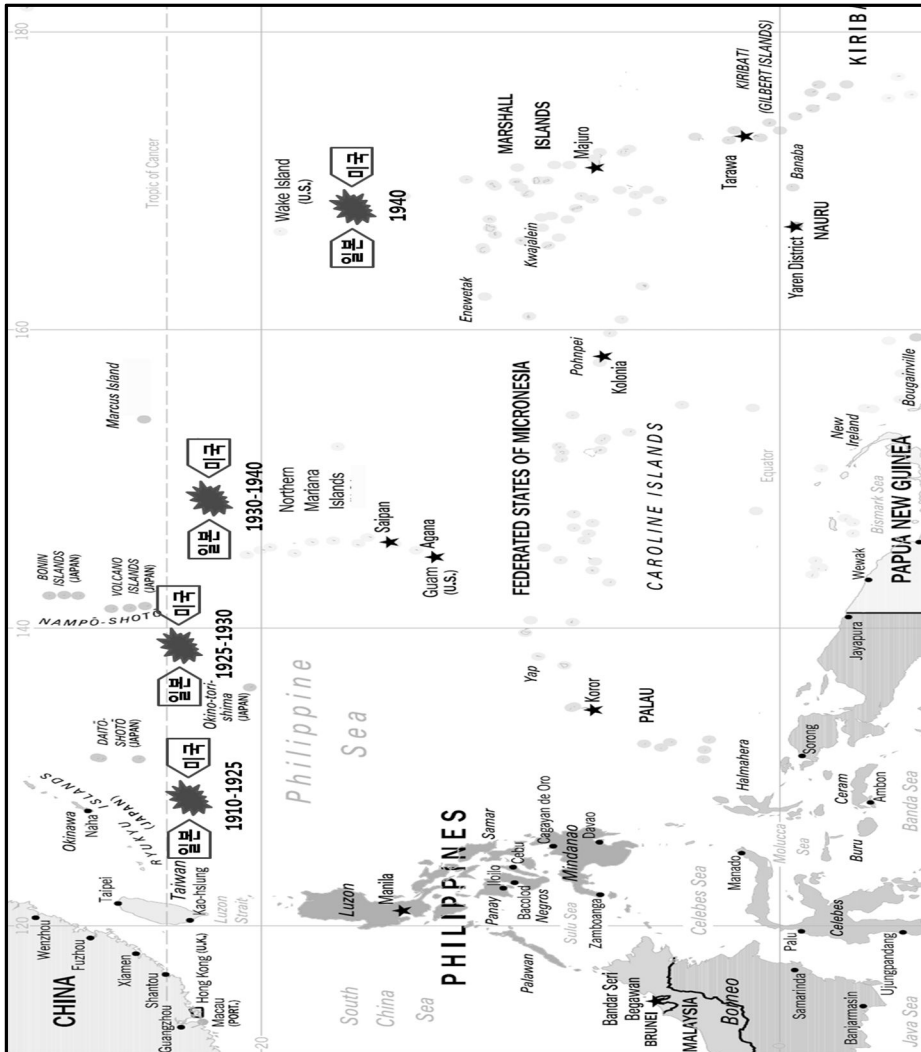
한편, 워싱턴 회의 이후 1930년대를 지나면서 무기체계의 발전과 안보환경의 변화, 해군군비경쟁의 심화 그리고 워싱턴 체제의 붕괴로 인해 일본의 “차단-소모 전략” 또한 변화되었다. 우선 핵심해양공간의 확대이다.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인해 해상플랫폼의 작전반경이 증가하여 결전 장소 또한 동쪽으로 확대되었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최초 1910년에서 1920년대는 류큐제도(the Ryukyu Islands) 근해였다. 이후 잠수함과 항공기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1930년대 초에는 보닌제도(the Bonin Islands)의 서쪽으로 확대되었다. 1930년대 중반에는 보닌제도와 북마리아나제도(the Marianas Islands) 사이, 1940년대 들어서서는 경도 160°E 상의 마셜제도(the Marshall Islands)까지 확대되었다.²²⁾

21) Rear Admiral Youchi Hirama, “Japanese Naval Preparations for World War II,” *Naval War College Review*, 44:2(Spring 1991), pp.63-64.

22) Captain Yoji Koda, “A Commander’s Dilemma: Admiral Yamamoto and the Gradual Attrition Strategy,” pp.68-69.

〈그림 1〉 일본의 핵심해양공간의 확대, 1910~1940



〈출처: Mark A. Campbell, “The Influence of Air Power upon the Evolution of Battle Doctrine in the U.S. Navy, 1922–1941,”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Boston, 1992), p.48.〉

다음은 전략개념의 변화이다.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일본의 해양전략은 방어적 → 공격적 → 방어적으로 변화되었다. 도전 이전 시기에는 주력함에 의한 결전을 해전의 핵심 국면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는 개전 초기부터 일본은 방어적 태세를 유지해야하며, 공격의 시간과 장소는 미국이 주도권

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²³⁾

〈표 1〉 일본 해양전략(차단-소모 전략)의 변화

구 분	해양전략	형태
도전 이전기 (1930년이전)	수세적 방어 (defensive interception-attribution strategy)	워싱턴체제 (현존함대)
도전기 (1930-41)	공세적 방어(기습공격) (offensive interception-attribution strategy)	진주만 기습 (선제공격)
도전 이후기 (1941이후)	수세적 방어 (defensive interception-attribution strategy)	필리핀 해전 (불침항모)

두 번째, 도전기에는 1936년 워싱턴 체제의 효력이 정지된 후 이전의 “고전적인 차단-소모 전략(the traditional interception-attribution strategy)”으로 는 그동안 미국의 해군력에 열세했던 전력으로 미국에 승리를 달성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개전 초기 단계부터 미국의 주력 함대를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엄청난 산업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 군력을 증강 시킬 것이고 이러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미국을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1936년 워싱턴 체제의 무력화 이후 일본은 기존의 수세 적인 방어적 전략에서 선제 기습공격으로 초기에 미국의 주요 전력을 무력화 시켜 일본의 방어력을 강화시키는 공세적 방어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것은 곧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으로 나타났다.²⁴⁾

23) 일본 전략가들은 미국이 태평양 공격 루트를 4가지로 예상했다. ① 북쪽루트(진주만 또는 미국의 태평양 기지로부터 알래스카, 알류산열도, 쿠릴열도를 거쳐 일본으로 공격), ② 남쪽루트(남태평양의 미국, 영국, 프랑스 도서기지 이용 일본 공격), ③ i) 중앙루트(하와이로부터 보닌제도, 마리아나제도까지 직접 공격), ③ ii) 중앙루트(하와이로부터 남쪽의 길버트제도, 마셜제도, 투르크 (Truk), 괌을 통과하는 공격) 등으로 판단했다. 이 중 북쪽루트는 거리상으로 가장 짧지만, 그 지역은 항상 기상이 불량하고 작전하기에 위험한 루트였다. 그리고 남쪽루트는 이동 거리가 너무 길어서 작전 상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중앙루트를 통해서 공격해 올 것으로 최초 판단 하였다. 미국 또한 일본 전략가들과 마찬가지로 공격 시 2개의 중앙루트 중 어느 쪽으로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 신속한 기동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해 들어가야 된다는 ③ i)번 루트를 주장하는 “급진파(the thruster)”와 일본의 적극적인 방어를 대비해 ‘step by step’으로 진격해야 된다는, 즉 ③ ii)번 루트를 주장하는 “신중파(the cautionaries)” 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The U.S. Strategy to Defeat Japan, 1897-1945*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pp.77-85.

24) 일본 야마모토 이소로쿠를 필두로 하는 함대파에 의해 결정된, 일본 해양전략의 공세적인 차단-소모전략으로의 전환은, 후에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일본이 공세적 작전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드웨이해전에서 패하였고, 과달카날 전투에서 어떠한

진주만 기습 시 일본의 ‘차단-소모 전략’에서 ‘차단작전(interception operation)’의 핵심은 ‘선제기습공격’이었고, ‘소모작전(attrition operation)’의 핵심은 ‘우세전략(outranging strategy)’이었다.²⁵⁾ 일본 함재기는 미국보다 작전반경이 더 넓었다. 일본 함재기는 350~400마일을 비행할 수 있었으나, 미국 함재기는 200마일을 비행 가능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초계기는 500마일, 미국 초계기는 350마일을 비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필리핀 해전에서 일본은 이러한 함재기의 장점을 이용하여 미국의 공격 범위 밖에서 함재기를 출동시켰으나, 너무 먼 거리로 인해 실질적으로 미국의 주요 함대에 도달한 함재기는 몇 기가 되지 않았다. 이 또한 일본의 패배로 끝이 났고, 일본 잠수함은 총 36척이 작전에 투입되었으나, 그들 중 단지 16척이 기지로 복귀하였던 것이다. 결국에는 일본의 핵심해양공간이 미국의 공격으로 무력화되었고, 일본의 도전은 실패로 끝이 난 것이다.

IV. 일본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해양전략

1.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 : 3단계 공격전략의 디자인

태평양이란 공간은 미국이 아시아로의 전력을 투사하기 위한 3단계의 과정을 계획하는 근거가 되었고, 이것이 대일 전쟁계획인 오렌지 계획의 출발이었

성과 없이 패배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개전 초 일본은 “방어할 수 있는 경제 공간(defensible economic sphere)”을 확고히 구축했어야 했고, 위험한 공격작전은 회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즉 일본은 “현존함대(fleet in being)” 전략을 추구했어야 했다고 하였다. Rear Admiral Youchi Hiram, “Japanese Naval Preparations for World War II,” p.76.

25) 일본의 “우세전략(outranging strategy)”은 전투함의 함포 사거리, 산소어뢰,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핵심수단으로 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미국에 대해 양적인 열세를 질적인 우세로 전환시키고자 한 일본의 차단-소모전략 중 소모전략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전투함보다 함포 사거리가 더 길고, 미국의 전투기보다 작전 반경이 더 넓은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1941년 건조된 60,000톤급의 일본의 야마토(Yamato)와 무사시(Musashi)이다. 그당시 세계 최고의 전함이었고, 18.1인치의 포를 장착하였고 사거리가 40,000m였다. 그리고 사거리가 긴 산소어뢰를 개발하였다. 또한 제로전투기(the Zero)와 같이 외부 장갑을 줄여 약 1,900마일을 비행할 수 있는 전투기의 개발을 들 수 있다. Rear Admiral Youchi Hiram, *Ibid.*, p.72.

다. 폭이 광대한 태평양의 지리적인 특성은 미국의 초기 공격적인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일간 대결 국면 시 초기에는 일본에 유리하지만 나중에는 미국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²⁶⁾

제 1단계는, 미·일간 분쟁 초기 일본은 신속히 서태평양의 미국 주둔 기지를 점령하여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 대한 가정은 태평양 전쟁 발발 전까지 수많은 대체 시나리오가 제안되었지만 결국에는 최초의 가정대로 진행되었다.

제 2단계는, 미 해군 전력의 태평양 횡단에 관한 계획이다. 미 전력은 아시아로 진출하여 전진 기지를 구축하고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며 동북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의 무역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3단계 행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의 핵심 단계로써 1906~1941년까지 이같은 구조적 틀에서의 수많은 변수들이 제시되고 제안되었다.

2단계 전략을 디자인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지리와 장기전과 단기전에 대한 딜레마이다. 태평양의 지리적인 광대함은 미국으로 하여금 쉽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하와이와 아시아 대륙 사이에 중간 기착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전쟁의 지속 기간은 2단계 작전을 하는데 요구되는 시간과 서태평양에 전진기지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변수들이 2단계 전략을 디자인하는데 고려되었고, 다음의 세 가지의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① 첫 번째는, ‘준비된 전진기지의 유지(the prepared western base)’이다. 평소 극동지역(루손, 괌)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여 분쟁 발생 시 미 함대가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미 해군 관계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1922년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거부 되었다.

② 두 번째는, ‘직행표 전략(the Through Ticket strategy)’이다. 전쟁 발생 즉시 곧바로 중간 경유지 없이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필리핀으로 미 함대를 급파하는 것이다. ‘마닐라로 가는 직행표(Through Ticket to Manila)’로 알려진 이 계획은 단기전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험주의파(adventurists) 또는 급진파(thrusters)로 불렀다. 비록 1925년에 일본

26)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The U.S. Strategy to Defeat Japan, 1897-1945*, pp.33-37.

폭격기에 의한 마닐라 공격의 위협으로 최종 목적지가 마닐라에서 필리핀 남부로 변경되었지만, 1906~1934년 동안 지지되었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속한 필리핀 점령에 의한 단기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계획은 태평양의 지리적 특성 즉, 거리적 변수를 너무 간과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결국은 채택되지 못했다.

③ 셋째는, ‘단계적 접근 전략(step by step strategy)’이다. 이 전략은 두 번째의 직행표 전략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태평양 섬들 중 전략적 가치가 있는 섬들을 요새화하여 축차적으로 전진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현실주의파(realists) 또는 신중파(cautionary)로 불렀다. 이 전략은 단기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아니었지만 태평양의 지정학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전략이었고, 1934년 미국의 공식적인 전략으로 채택되었으며, 태평양 전쟁 시 핵심 전략으로 이행되었다.

1914년 이전 태평양의 지정학적 특징은, 태평양의 대부분의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섬들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서태평양에서 미국이 소유한 섬들 중 괌만이 제한적인 해군기지로써의 역할이 가능했다. 사모아와 알류산 열도는 일본과의 전쟁을 하기 위한 기지로서는 제한점이 많았고, 태평양의 작은 산호섬 또한 항공기가 주요 전투 수단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활용성이 떨어졌다.

1914년 이후 일본은 이전 독일령이었던 미크로네시아의 섬들을 획득하였다. 미크로네시아의 섬들은 미국이 아시아로 접근하기 위한 핵심 해상교통로 상에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태평양의 지정학적 구도의 변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점진적 공격의 효율성에 대한 이점을 인식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제 3단계는, 미국이 서태평양에 성공적으로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아시아의 해안과 평행하게 일본 본토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점진적으로 진격하면서 일본이 항복할 때 경제적인 봉쇄작전과 주요 산업 시설들에 대해 공중폭격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 포위 계획은 1911년에 공식화되었고, 1920년대 말 일본에 대한 폭격이 가능한 전폭기의 출현으로 더욱더 구체화 되었다.

이와 같은 태평양에서의 3단계 공격 전략의 구상은 태평양의 지리적 요소를 활용하여 어떻게 미국의 해양력으로 일본을 이길 것인가 하는 대전략의 차원으로 끌어들었고,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을 태평양 전쟁기간 동안의 국가 정책으로 이행되게 만들었던 것이다.

2. 동태평양의 핵심해양공간

날짜 변경선(the International Dateline)인 위도 180도를 기준으로 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구분은 미국의 지정학적 인식에 의한 태평양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다. 미국은 동태평양을 미 본토와 함대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방어구역, 그리고 아시아로의 공격을 위한 전략적 예비 기동구역으로 구분하였다.

1823년 미국 ‘서반구’에 대한 제국주의 개입을 제한한 ‘먼로 독트린(the Monroe Doctrine)’ 선언 이후, 1842년에는 방어 범위를 하와이까지 확장한 ‘타일러 독트린(the Tyler Doctrine)’을 선포하게 된다. 1867년에는 미드웨이와 알래스카를 구입하여 태평양에서의 영향권을 하와이에서 서쪽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하와이의 합병과 함께 사모아와 몇몇 도서들을 획득하였다. 우선 미국은 동태평양의 지정학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도서로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 하와이, 미드웨이, 존스톤 섬(the Johnston Island)을 전진기지화 시켰다.

① 알래스카(Alaska)는 1920년 중반까지 미국의 주요 전구로부터 제외되어 있다가 1930년 말에 들어서 주요 전략 거점으로 고려되었다. 알래스카의 항공기지에서 출격할 일본의 폭격기들이 미국 태평양 북서부의 해안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미국은 1938년에 8,1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1941년 10월에는 50대의 전투기와 함께 23,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했고, 미 육군 항공단은 일본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 항공 센터 구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② 알류산 열도(the Aleutian Islands)는 태평양에서 일본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미 해군은 일본 공격의 전략 거점 지역으로 알류산 열도를 고려하기도 하였고 초기 오렌지 계획에서는 일본이 알류산 열도에 순양함 기지를 구축하여 미국을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워싱턴 조약은 1922~1936년 기간 동안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나, 조약 파기 후 미 해군의 통제 하에 방어 구역으로 할당되었다. 1935년 미 항공국의 책임자였던 킹(Ernest King) 대령은 이 지역에 항공기지 건설을 요청하였고 미국은 알래스카 반도의 끝에 위치한 더치항구(Dutch Harbor)와 알류산 열도의 중간에 위치한 에이댁(Adak)을 유

용한 입지로 선정하였다. 1938년 미 해군은 코디악 섬(Kodiak Island)에 알류산 열도에서 적도까지 동 태평양 지역을 순찰할 수 있는 항공기지 구축을 제안하였다. 1939년에는 항구가 동결 되었을 때도 이착륙을 할 수 있는 항공기가 개발되어 알류산 열도의 전략 기지로서의 유용성은 증대되었다.²⁷⁾

③ 하와이는 동태평양의 최종 방어선이자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최초 공격선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섬이다. 하와이는 1898년 미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합병되기 전까지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보호령 하에 있었는데, 하와이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최초의 주장은 1841년 남극 탐험가인 윌키스(Charles Wilkes, 1798-1877) 해군 소장에 의해 제기되었다. 1880년 해군 중장 스코필드(John M. Schofield)는 태평양의 강력한 해양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와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미국은 하와이의 칼라카우아(Kalakaua) 왕으로부터 해군 기지건설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²⁸⁾

하와이의 진주만은 수 십 척의 함정들이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깊은 지형이었으나 들어오는 입구는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었다. 따라서 초기의 오렌지 계획에서는 미 함대가 수에즈를 통해 필리핀으로 기동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진주만의 개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1907년 올리버(James O. Oliver) 사령관이 ‘태평양 횡단기동(transpacific movement)’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히면서 진주만을 무기고와 건선거(dry docks)가 구축된 강력한 요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1908년, 미 합동위원회(the Joint Board)는 진주만 개발을 승인하였고, 1911년에 큰 함정들이 출입할 수 있는 협수로가 준설되었다. 하지만 건선거와 연안의 시설들에 대한 작업은 느리게 진행되었는데 일본의 진주만 기습전까지도 진주만은 대규모의 함대를 수용할 수 없었다.²⁹⁾ 이것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서의 방어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1913년, 미 육군 연안경비대(Army Coast Artillery Corps)

27) Gordon Swanborough & Bowers Peter M, *United States Navy Aircraft since 1911*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76), p.80.

28) 1870년에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자국의 함선을 보호하기 위한 태평양의 중간 석탄 기지로서 미드웨이와 사모아를 고려했으나 항구로서의 입지조건 및 거리적 제한사항 때문에 개발을 포기했다. 따라서 하와이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더욱더 증대 되었다. William Michael Morgan, "Strategic Factors in Hawaiian Annexation" (Ph. D.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School, 1980), pp.13-15.

29) William Reynolds Braisted,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Pacific, 1909-1922* (Austin: University of Texas, 1971), p.40.

가 설치되었고, 1920년에는 비행장이 건설 되었다.

1928년 일본의 항공모함과 작전반경이 확대된 잠수함의 출현으로 미국은 하와이를 방어함에 있어서 지정학적인 취약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은 하와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도서를 획득하기 시작했다. 19세기부터 미국은 알류산 열도, 하와이에서 미드웨이로 이어지는 리워드 환초(the Leeward Chain of atolls), 하와이 남쪽의 존스톤 섬, 팔미라(Palmyra), 칸톤(Canton) 환초, 사모아 섬 등을 포함한 수많은 작은 섬들을 획득했다. 이러한 섬들은 함대 기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항공기와 경전투함에는 적합하였다. 180도 자오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하와이 전방에서 남북 4,500마일의 피켓라인을 형성하여 하와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리적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섬들은 1922~1936년 기간 동안 워싱턴 조약에 의해 비군사화되었다. 한편 리워드 환초, 존스톤 섬, 팔미라 섬 등은 조약에서 제외되었지만 미 행정부는 이 섬들 또한 중립화 시켰다. 하와이의 남쪽 환초들은 1939년 호주와 동맹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중요하지 않은 곳으로 간주되었고, 미드웨이와 웨이크 섬은 하와이 방어 및 미 함대의 공격을 위한 핵심 전략 기지로 판단했다.

④ 미드웨이(Midway) 섬은 하와이에서 북서쪽으로 뻗어있는 10개의 리워드 환초 중 끝부분에 위치해 있다. 오렌지 계획 초기에 미 해군 전략가들은 일본이 하와이의 오아후(Oahu) 섬과 미국의 핵심교통로를 공격하기 위해 리워드 환초에 기지를 건설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미드웨이는 미 함대가 공격을 위해 광으로 직행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 지점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섬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하와이를 안전하다고 판단한 미 행정부는 함대를 캘리포니아로 후퇴 시켰고, 1922년 워싱턴 조약의 발효로 미드웨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서면서 미·일간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미드웨이의 중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1935년에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리브(Joseph M. Reeves) 제독은 미드웨이에 기지건설을 요청했고, 1941년 12월 말 미 해군의 지휘권을 넘겨받은 킹(Ernest King) 제독은 하와이의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한 핵심 임무로써 하와이-미드웨이 라인을 사수하라고 지시하였고 미드웨이를 요새화 시켰다.³⁰⁾

30) 태평양 전쟁기 태평양 섬들의 미 해군항공기지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David O. Woodbury, *Builder for Battle: How the Pacific Naval Air Bases Were Constructed* (New York: Dutton, 1946), chaps. 7, 10, 11 참조.

⑤ 하와이로부터 남서쪽으로 700마일 떨어진 존스톤 섬은 하와이를 방어하기 위한 섬들 중 가장 작은 보조병 역할을 했다. 항공시대 이전 미 해군은 존스톤 섬을 마이크로네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판단했다. 1920년에 들어서 미국은 존스톤 섬을 항공기지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했고, 1933년에는 일본 점령의 마셜제도를 공격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판단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태평양의 지정학적 인식에 기초한 동태평양의 전진 기지화는 미국의 최종 방어선인 하와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1940년 5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을 억제하기 위해 미 함대의 대부분을 하와이로 이동시켰으나 결국에는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동태평양 방어선이 뚫렸다. 하지만 태평양의 지정학적 인식에 의한 동태평양 전략적 섬들의 요새화는 이후 미 해군이 최초로 추구하고자 했던 공격적 독트린을 실행하기 위해 핵심적 수단으로서 작용하였다.

3. 서태평양의 전진기지화 시도와 실패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제 1단계에서 미국은 필리핀이 일본의 공격에 의해 함락될 것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일본 공격을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은 했으나, 미국의 태평양에서의 지정학적 취약점으로 인해 일본과의 분쟁 초기에는 필리핀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이 20만명의 군사력으로 2만명이 방어하고 있는 필리핀을 손쉽게 함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미국은 1898~1922년까지 필리핀의 요새화에 대해 주장했지만, 미 행정부는 이를 거절했었다. 1922년 워싱턴 조약은 필리핀의 요새화를 금지 시켰고, 1930년대 들어서 일본의 우수한 항공력의 출현은 미국의 필리핀 방어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적으로 태평양 전쟁 초기 필리핀 마닐라는 3주만에 함락되었고, 미국은 필리핀을 방어하는 대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에서 호주까지 연결된 도련선인 ‘말레이 장벽(Malay Barrier)’을 방어했다.

1908년 1월 31일, 미 합동위원회(the Joint Board)가 필리핀의 수빅만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고, 1910년 미해군대학(NWC) 회의에서 필리핀에 있는 어떠한 함대기지도 효과적으로 방어될 수 없다고 결정한 후부터 미국의 서태평양의 전진기지에 대한 관심은 꾀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³¹⁾ 이것

은 태평양에서 미국의 방어선이 후퇴했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괌은 마닐라로부터 1,510마일, 도쿄로부터 1,360마일 떨어져 있었다. 이러한 괌의 지리적 위치가 가지는 이점 때문에 일본은 괌을 해상방어선의 핵심 거점으로 판단했고, 미국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잠재적 공격 거점으로 판단했다. 과거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 시, 하와이에서 필리핀까지의 5,000마일항해 거리의 중간 연료 재보급 기지로서 괌을 활용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의 대안으로 괌의 전략적인 가치가 증대되었다.³²⁾

미 해군은 괌을 요새화 시키는 것이 태평양 전략의 필수조건으로 판단하여 괌을 전진기지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1910년 미해군대학(NWC) 회의에서 괌을 최우선적으로 요새화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머헨은 극동으로의 신속한 진격을 주장하면서 “괌은 태평양의 지브롤터로 간주하여 보호해야 한다. 괌을 요새화 시킨다면 하와이를 보호할 수 있고, 필리핀을 구하기 위해 진격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일본을 정복할 수 있다”³³⁾고 하였다.

1914년 일반위원회(the General Board)의 오렌지 계획은 미 해군은 괌으로부터 일본의 필리핀 해상교통로를 차단시키면서 보닌제도와 류큐제도에 있는 일본 기지를 압박하고 일본 본토를 위협해야 한다고 계획하였다. 1917년에는 괌에 대형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건설해야 하고, 일본의 공격으로부터 수개월을 버틸 수 있게 요새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1903년 합동위원회(the Joint Board)는 괌이 일본의 공격으로부터 4개월을 견딜 수 있게 요새화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윌슨 대통령은 요새화를 위한 합동조사를 승인하였다.³⁴⁾

하지만 태평양 해양전략의 핵심 전진기지로서 괌의 요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미 해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22년 워싱턴 조약 19조는, 경도 180도 서쪽의 필리핀, 괌, 웨이크, 서알류산열도의 군사기지화를 금지시켰다. 1938년 워싱턴 조약이 파기된 후 미 해군은 다시한번 괌을 전진기지화 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치적 요인에 의해 미 행정부는 거절하여 괌을 요새화하지 못하고 태평

31) William Reynolds Braisted,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Pacific, 1897-1909* (New York: Greenwood Press, 1969), p.219.

32) 1905-6년 미 해군은 괌에 5,000톤의 석탄을 적재할 수 있는 선적장을 만들었다. Earl S. Pomeroy, *Pacific Outpost: American Strategy in Guam and Micronesia*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70), pp.24-25.

33) Robert Seager II, *Alfred Thayer Mahan: The Man and His Letter*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77), p.485.

34)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p.71.

양 전쟁을 맞이한 것이다.

필리핀에 이어 괌을 포기함으로써 미국은 서태평양의 군사적 방어선을 하와이까지 후퇴하였던 것이다. 정치적 방어 요소가 군사적 공격 요소를 수단화시킨 것이다. 태평양 전쟁 발발 첫째 주에 괌은 일본에 의해 함락되었고, 1944년에서야 미 해군에 의해 재탈환 되어 해군 보급 및 수리 기지로써 개발되었다.

4. 미국의 공격적 해양전략

1933년 루스벨트 행정부가 들어서고 1934년 일본의 워싱턴 조약의 탈퇴로 인한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태평양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방어적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도전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미 해군은 태평양 해양전략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었다.

오렌지 계획의 탄생 이후부터 30년 동안 대립되어 왔었던 급진파(Thrusters)와 신중파(Cautious) 간의 제 2단계에서의 태평양 횡단 방법에 대한 결론이 1933년에 들어서 결정되었다. 신중파가 주장했던 아시아로의 점진적 공격 전략이 오렌지 계획의 2단계의 전략으로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급진파들이 주장해왔던 필리핀으로의 신속한 기동 개념은 오렌지 계획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폐지되었던 것이다. 신중파의 전략이 일본에 대항하는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선택을 주도한 것은 그 당시 해군의 주요 삼두마차였던 작전사령관(CNO), 함대사령관(CinCUS), 해군전쟁계획부국장(director of the Naval War Plans Division) 이었다. 1933년 7월 1일 루스벨트는 작전사령관에 스탠들리(William H. Standley)를 임명했다. 스탠들리는 신중파의 브라이언트(Samuel W. Bryant) 대령을 해군전쟁계획부국장으로 계속 유지시켰고 항공력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리브(Joseph M. Reeves) 제독을 함대사령관에 임명했다. 이 세 명의 주요 삼두마차가 오렌지 계획의 2단계를 단계적 접근 전략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수정된 오렌지 계획은 제 2단계 작전 시 투르크(Truk) 섬을 통과한 후 필리핀이나 그 이외의 지점으로 신속히 기동한다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하였다. 그리고 1935년 5월, 합동위원회와 전쟁장관에 의해 승인되었다.

한편, 미국은 이 시기부터 해군력을 증강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국은 워싱턴 체제를 통해 현상유지를 추구하고자 했으나 일본의 조약 탈퇴와 군비증강은 미국의 태평양 안보에 대한 딜레마를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곧 미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은 1934년 3월 제1차 ‘빈슨-트라멜(the Vinson-Trammell)’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약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의 해군력 확장이었다. 이 법안은 미 해군력 증강계획으로 5년 간 군축조약에서 결정된 허용한도의 구축함 65척, 잠수함 30척, 항모 1척, 해군항공기 1,184척을 1942년까지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29년부터 진행되어왔었던 순양함 6척 건조를 추가로 승인하였다.

오렌지 계획의 핵심 전제는 태평양이라는 하나의 전구에서 두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한 한 국가의 무제한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오렌지 계획의 핵심 전제가 1935년 들어서면서부터 그동안 지속되었던 태평양에 대한 정치적 방어주의, 유럽의 위기 증가, 육군의 반대 등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이것은 곧 유럽 우선주의에 대한 인식 전환의 시작이었고, 오렌지 계획의 소멸과 레인보우 계획의 탄생을 알리는 시발점이었다. 미 육군은 태평양 전쟁 발발 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미 해군은 신속한 공격을 주장하면서 대립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합동기획위원회(JPC)는 전 세계의 위협에 대응한 미 육·해군의 일치된 전략을 1939년 5월부터 도출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레인보우 계획의 탄생을 위한 첫 출발이었다.

미 육군은 해군의 공세적인 오렌지 계획에 대해 반대를 했었는데 이같은 내부적인 갈등은 육군과 해군과의 서로 다른 문화적인 차이점 때문이기도 했다. 해군은 작전반경이 크기 때문에 항상 신속한 기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반면, 육군은 본토 방어라는 주 임무 때문에 작전반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은 공세적인 성향을 보이고, 육군은 수세적인 성향을 보이는 각 군 특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정체성이 각 군의 전략을 형성하는 기준이 된다. 이를테면 미 육군은 알래스카-하와이-파나마를 연결하는 핵심해양공간 이내에서 전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태평양 군사전략의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고 하였다. 한편 미 해군은 태평양에서의 공격을 핵심 임무로 설정해야 하고, 이러한 목표에 따른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미 해군의 목표는 일본의 패배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 해군의 행동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어야 하며 완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 해군의 관점에서 육군의 임무는

적을 파괴하기 위해 병력과 전투기를 제공해주는 것이었다.³⁵⁾

미국은 육군과 해군의 이러한 전략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자 했고, 이러한 노력은 1938년 2월 ‘합동오렌지계획(Joint War Plan Orange)’으로 수정되었다.³⁶⁾ 육·해군은 서로 간의 임무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육군은 알래스카-하와이-파나마를 연결하는 핵심해양공간 내에서의 전력의 전략적 집중을 구상했고, 해군은 아시아로 기동하기 위한 전략적 작전 계획을 준비했다. 미 해군은 일본의 완전한 패배라는 공세적인 임무를 유지했고, 육군은 중앙태평양에서의 점진적인 진격, 그리고 육군 병력과 항공기의 제한된 투입을 계획했다. 하지만 육군은 태평양 전쟁 초기 전역에서, 마셜 제도 전역에 필요한 병력을 감소시켰다. 항공지원 또한 600기에서 150기로 줄었다. 매월 5만 명의 병력과 수천기의 전투기 지원 또한 취소시켰다. 육·해군의 전쟁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해군력 증강을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1938년 5월 제2차 빈슨-트라멜 법안을 수립하였다. 이 법안은 미 해군 함대 세력의 20%를 증가시키는 법안으로써, 1938년 미 의회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미국 해군을 확장했다. 69척의 함정을 더 건조할 수 있게 되었고, 총 400,000톤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³⁷⁾ 주력함 24척, 항모 8척, 순양함 48척 등 총 190만 톤의 함정과 항공기 약 3,00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939년 5월 11일 합동위원회(JB)는 육·해군의 의견이 일치된 계획을 구상하게 된다. 합동위원회는 산하에 있는 합동기획위원회(JPC)에게 5가지의 다국적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문하였다. 이 계획은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삼국동맹 국가들에 의한 동시적인 위협을 가정하여 계획되었다.

1939년 합동기획위원회는 미국의 서반구를 방어하기 위한 수세적 방어계획인 ‘레인보우-1(Rainbow-one)’ 계획을 구상하였다. 합동위원회는 미국이 방어할 수 있는 서반구(the Western Hemisphere)의 범위를 대서양의 서경 30도에서 태평양의 하와이, 알류산열도, 웨이크섬 등을 포함하는 동경 150도까지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1939년 9월 독일의 유럽 침공, 1940년 6월 프랑스 함락 등의 사건으로 영국 또한 독일의 침공으로 오래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여

35) Louis Morton, *Strategy and Command: The First Two Years*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p.72.

36) Robert Greenhalgh, *Makers of Naval Policy, 1798-1947*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80), p.171.

37) Akira Iriye,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in Asia and the Pacific*, p.63.

미국이 방어할 수 있는 서반구의 범위를 확장한 ‘레인보우-4(Rainbow-4)’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미국은 케이프 혼(Cape Horn)까지 방어구역을 확장시키고, 모든 전투함과 비행선을 캐리비안 해로 전개시켰다. 한편 태평양에서는 방어구역을 미드웨이에서 알래스카의 우날래스카(Unalaska)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령의 폴리네시아 섬까지 제한시켰다. 1940년 5월 31일 합동위원회는 레인보우-4를 완성했고, 동년 8월 루스벨트는 승인했다.³⁸⁾ 하지만 미국에 대한 도전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은 더 이상 방어적인 계획인 레인보우-1,4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940년 9월 이후 레인보우-1,4 계획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1939년 봄, 합동위원회는 레인보우-1,4의 수세적인 전략에서 벗어난 공세적인 성격의 ‘레인보우-2,3(Rainbow-2,3)’ 작전계획을 지시하게 된다. 레인보우-2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아니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신속히 서태평양의 제해권을 확립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다. 1939년 9월, 합동기획위원회는 레인보우-2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기본 계획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협력을 통해서 일본에 대응한 전쟁을 계획하는 것이었다. 레인보우-2 작전계획 수립 시에도 육군과 해군 간 의견 대립이 있었다. 육군은 동남아시아의 전장에서 연합군 병력 215,000명, 항공기 381기, 순양함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남방에서부터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해군은 레인보우-2의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 해군은 군사력이 도착하기 전, 일본은 이미 인도차이나, 보르네오 유전지대로 진출할 것이며 필리핀을 점령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시아에 전개되어 있는 영국 전함은 3척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방어가 취약한 네덜란드령의 섬들을 점령하여 싱가포르를 쉽게 확보할 것이라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은 전쟁 발발 후 해군력을 신속히 아시아에 전개시키지 않는다면 말레이시아를 회복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미 함대가 남지나해까지 전개된다면 일본 해군은 태평양의 섬들을 더 요새화 하고, 하와이를 지나 미 서부연안까지를 포함한 동태평양을 공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에 있는 미 군사력의 일부는 동태평양의 방어를 위해 투입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아시아지역에서 미 해군은 일본 해군에 대한 우세를 유

38) Louis Morton, *Strategy and Command: The First Two Years*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pp.70-73.

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1940년 4월, 합동기획위원회는 이전보다 덜 공격적인 레인보우-2 계획을 발표했다. 함대의 임무가 일본의 남방진출을 저지하는 제한된 역할과 보르네오 유전지대 근해의 제해권 확보로 수정되었다. 그런데 1940년 5월 유럽에서 독일은 전격전 전략을 통해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점령했고, 나아가 영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레인보우-2 계획의 기본 전제인 태평양에서 합동 작전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1940년 10월, 레인보우-2 계획은 폐지되었다.

동맹국들이 태평양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독자적으로 일본을 상대해야 했다. 이것은 곧 ‘레인보우-3(Rainbow-3)’ 계획으로 발전했다. 이 계획의 기본 개념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서양을 방어하고, 미국은 태평양에서 독자적으로 일본을 상대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태평양을 먼저 확보하고 환경이 허락하는 한 신속히 아시아로 진격한다는 것이다.

레인보우-3는 레인보우-2와 오렌지 계획을 혼합한 전쟁계획이다. 이 계획의 가정은 전쟁 초기 필리핀, 북 인도차이나, 싱가포르 등이 일본에 의해 함락되고 미약하나마 ‘말레이 장벽(the Malay Barrier)’이 동맹국의 전력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하와이에 미 군사력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아시아로 진격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목적은 아시아에 함대를 증강시켜 말레이 장벽을 방어하고 보르네오 유전 지역까지 일본의 진출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시아 함대의 강화는 하와이까지 형성되어 있는 미국의 해상 방어선을 넘어가는 것이었고, 함대 전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미 행정부의 정치적 방어주의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1941년 1월 16일 루스벨트는 승인을 거절했다.

이러한 와중에 1940년 6월 14일, 미 의회는 11%의 함대 증가분이 추가로 포함된 제 3차 빈슨-트라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함정 22척 총 167,000톤의 건조와 항공기 1,500기를 1942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1940년 7월 19일 통과된 제 4차 빈슨-트라멜 법안은 미국 함대가 70% 가량 증강되는 것을 허용했다. ‘두 대양 해군법안(Two-Ocean Navy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전함 7척, 항모 18척, 순양함 29척, 구축함 115척, 잠수함 42척을 증강시켜, 함정 257척 총 132만 톤, 항공기 15,000대를 1946년까지 확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³⁹⁾

유럽에서 독일의 위협은 미국으로 하여금 태평양과 대서양의 양면전선 형

성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증대시키고 있었다. 태평양 섬들을 단계적으로 점령하면서 점진적으로 진격한다는 미 해군 신중파의 전략은 양면전선의 형성으로 봉쇄를 걱정하고 있는 미국에게 ‘윈-윈(win-win) 전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1940년 11월 12일, 작전사령관 스타크(Harold R. Stark) 제독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이시기 가장 중요한 전략 문서이자 후일 ‘레인보우-5(Rainbow-5)’의 원형이 되는 ‘플랜 D(Plan D)’를 보고한다.⁴⁰⁾ 이 계획은 유럽 우선 정책이고 태평양 방어전략이었다. 먼저 미국 주도로 유럽에서 독일을 패배시키고 이 임무가 종료되면, 태평양에서 대일본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유럽이 안정화 될 때까지 태평양에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동태평양을 방어한다는 전략으로, 이것은 곧 서태평양을 포기한다는 것이기도 했다. 합동위원회는 이 계획을 인정했고, 루스벨트 또한 암묵적으로 승인했다.

이후 12월, 미 해군은 임시적인 태평양 해양전략인 ‘WPL-44(War Plans of Office of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44)’를 수립한다. 이 계획은 레인보우-3 계획을 발전시킨 태평양의 방어전략으로써 미 해군의 재군비를 강화하고, 일본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시적인 동맹선포, 경제제재, 중국에 대한 무기 지원 등과 같은 조치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레인보우-5 계획에 흡수되어 태평양 해양전략으로 체계화 되었다. 1940년 12월 7일, 지난 35년간 유지되어 왔던 미 해군의 공세적인 오렌지 계획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1941년 봄, 미 해군은 유럽에서 영국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던 함대의 대부분을 대서양으로 전개시켰다. 이 결정은 동남아시아에서의 레인보우-2,3 계획을 무력화 시켰고, 태평양 함대의 세력은 이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같은 대서양에 대한 전력의 집중은 태평양에서 일본 해군력에 대해 상대적 열세함으로 나타났다.

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는 1941년 3월 ‘ABC-1’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합동기획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결과를 레인보우-5 계획으로 전환시킨다. 1941년 6월 2일 루스벨트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인한다는 조건으로 레인보우-5 계획을 승인했다. 루스벨트가 이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못한 이유는 영국이 유럽의 독일 우선 정책에는 동의했지만 태평양에 대한 계획, 특히

39) “Ship Building 1933-1945, Roosevelt, Franklin D.,” <http://www.globalsecurity.org/html>.

40)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p.270.

싱가포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946년 3월 레인보우-5 계획이 공식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의 전쟁계획으로 이행되었다. 레인보우-5 계획이 루스벨트에 의해 승인되는 순간 이전의 모든 계획(오렌지 계획, 레인보우-1,2,3,4)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 ‘윈-윈 전략’과 ‘머헨의 집중의 원칙’을 핵심으로 한 유럽 우선 공격, 태평양 방어 작전계획인 레인보우-5 계획은 지상군 공격을 통한 독일 패배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대서양에서 미 해군의 임무는 해상교통로 보호였다.

한편 레인보우-5 계획 하에서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임무는 전략적 방어 임무였다. 극동지역에 전개되어 있던 미군은 추가적인 해군의 지원 없이 스스로 버텨야 했다. 태평양함대는 서태평양을 포기하고 동태평양을 방어해야 했고, 일본의 통상을 차단시키고 투르크 섬까지 단계별 공격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항공력 지원은 제한되었고 만약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항공지원을 대서양으로 전한시켜야 했다. 즉 태평양 전쟁은 1943년 1월, 힘의 중심이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전환되기까지 제한전이었고 방어적이었다.

V. 결론 및 함의

20세기 초 일본은 해양지정학적 인식이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태평양이라 공간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됨을 인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일본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을 인식하여 남태평양으로 진출하였다. 1922년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현상유지정책인 워싱턴체제에 편입하였으나, 1923년에는 미국을 제 1 가상 적국으로 인식하게 된다. 조약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계치까지를 해군력을 건설하면서, 조약에서 제외된 해상플랫폼(잠수함, 상륙함, 보조함 등)들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켰다.

미국이 제 1 적국이라는 인식은, 핵심해양공간 진출을 위한 해군력 증강이라는 안보딜레마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인식은 1936년 워싱턴체제의 탈퇴로 나타났고 본격적으로 미국에 도전을 시작한 것이었다. 이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은 차단-소모전략을 구체화 시켰다. 그리고 1941년

진주만 기습을 일으킨 것이다.

한편, 20세기 들어 아·태지역의 패권을 꿈꾸던 미국은 해양지정학적 인식을 발전시켰고, 이에 도전하는 일본을 공식적인 잠재적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1911년 오렌지 계획을 수립하여 대일 전쟁계획을 구체화시켰다. 미 본토와 하와이에서 서태평양까지의 거리와 해공군력이라는 해양력, 그리고 전장이 해상이라는 지리적 요소, 이 세 가지 변수가 만들어내는 지정학적 요소들이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 세 가지 변수들을 수세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공세적으로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세적 해양전략 또는 공세적 해양전략으로 일본의 도전에 대응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20세기 전반기 일본과의 대립 시 미국은 섬나라 일본의 전략적 취약점을 염두에 두고 해양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서태평양에 대한 제해권을 달성하여 전쟁초기 일본에 빼앗긴 필리핀, 괌 등의 영토를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주변 해역을 봉쇄하고 해상교통로를 확보하여 자원, 특히 석유가 일본 내로 유입하는 것을 근절함으로써 일본함대로 하여금 결전에 임하도록 강요한 후 이를 괴멸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공습에 의해 일본의 주요 산업기반을 파괴함으로써 국가 생존 기반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오렌지 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차단-소모 전략과 미국의 오렌지 계획의 대결에서 미국의 해양전략이 승리를 거두었다. 20세기 이후 미국이 태평양 지역으로의 첫 진출 후 일본의 도전에 대한 승리는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전략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는 전진도서기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미국이 선택한 가장 큰 전략적 실수는 태평양의 도서들을 일본에게 양보한 것이었다. 비록 이러한 선택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현상유지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일본의 도전 후 일본의 핵심해양공간을 돌파하는데 엄청난 전략적 손실을 입은 것 또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에서 전진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은 향후 미국의 해양전략 구상에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태평양이라는 장애물이 앞으로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의 구상에 있어서 지정학적 취약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입지가 군사적으로 방어적 현상유지를 취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비록 이러한 지정학적 취약점이 태평양 지역에 전진기지의 확보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

략에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고 향후 도전국가들은 이러한 점을 더욱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에게는 우세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능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갖추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수요건이 된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현상 유지를 위해 자국의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전개시킨 우세한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한 전진방어에 의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잠재적국 주변에 해공군력을 전개시킬 전진기지들을 설치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이 미국의 태평양 지역의 해양전략 구상의 기본요소로서 향후 계속 견지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들은 적극적 방어 입장에서 핵심해양공간을 통해 미국에 도전할 것이다. 미국은 핵심해양공간을 뚫기 위해 전략거점 지역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잠재적국의 도전에 대하여 공세적인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자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영준, “Alfred T. Mahan의 해양전략론에 대한 연구.” 『陸士論文集』 제44호(1993).
- 박창희, “동북아 지전략적 핵심공간과 근대 일본의 현상도전.” 『아시아연구』(2010).
- Defarges Philippe Moreau, 이대희·최연구 역. 『지정학 입문: 공간과 권력의 정치학』. 서울: 새물결, 1997.
- Braisted, William R., “The United States Navy’s Dilemma in the Pacific, 1906–1909.”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26, No. 3(Aug, 1957).
- Bywater, Hector C., *Sea Power in the Pacific: A Study of the American–Japanese Naval Problem*. Boston: Houghton Mifflin, 1921.
- Cumings, Bruce, *Domin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 Dirlik, Arif, *What Is in a Rim?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Pacific Region Idea*.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1998.
- Fumio, Takahashi, “The First War Plan Orange and the First Imperial Japanese Defense Policy: An Interpretation from the Geopolitical Strategic Perspective,” *NID Security Report*, No.5(March 2004).
- Gerace, Michael P., “Between Mackinder and Spykman: Geopolitics, Containment, and After.” *Comparative Strategy*, 10:4(1991).
- Grenville, J. A. S., “Diplomacy and War Plans in the Unites States, 1890–1917.”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Vol. 11(1961).
- Hagan, Kenneth J., *In Peace and War: Interpretation of American Naval History, 1775–1978*, Westport: Greenwood Press, Inc. 1978.
- Halpern, Paul G., *A Naval History of World War I*.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1994.
- Hirama, Yoichi, “Japanese Naval Preparations for World War II,” *Naval War College Review*(Spring, 1991).
- Iriye, Akira,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in Asia and the Pacific*. New York: Longman Inc, 1987.
- Miller, Edward S., *War Plan Orange*.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1.
- Spykman, N. J., “Geography and Foreign Policy I.”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no. 1(Feb, 1983).

Abstract

The U.S. Maritime Strategy Against the Japan in the Pacific War
- Geopolitical Perception and The U.S. Response Against the Revisionist Power -

Jung, Gwang-Ho*

To control the sphere, it required a strategic understanding to sphere and a power for overcome to it.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Pacific-War i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the Japan for holding supremacy a pacific ocean sphere, building on maritime geopolitical perception.

The Pacific ocean is a large of sphere, so if a country pursues a Pacific region supremacy, it needs a strategic perception and capability to control the sphere.

After the U.S. has unified the continental, it has formed geopolitical perception in the Pacific ocean and by the way to control the Pacific ocean selected a naval power.

The U.S. must have overcome a Pacific sphere for getting through to the Pacific region, this concept has developed the War Plan Orange(war plan relations with the Japan).

Meanwhile, at this point of time, the Japan has recognized to a geopolitical point of view about security environment in the Pacific ocean, like as the U.S. has the War Plan Orange in mind for building on geopolitical perception of the Pacific ocean, the Japan also has learned geopolitical perception from the U.S. Because of this, the Japan has established the

* LCDR, Sub Flot ROKN.

Interception-Attrition strategy(war plan relations with the U.S.).

If we don't have overcome a sphere of the Pacific ocean, we don't hold hegemony of the Asia-Pacific region. So the analysis of perspective maritime geopolitics about the Pacific war is a meaningful study.

Key Word : Control the Sphere, Pacific Ocean Sphere, War Plan Orange, Interception-Attrition Strategy

논문접수 : 2015년 9월 30일 | 논문심사 : 2015년 11월 9일 | 게재확정 : 2015년 11월 17일